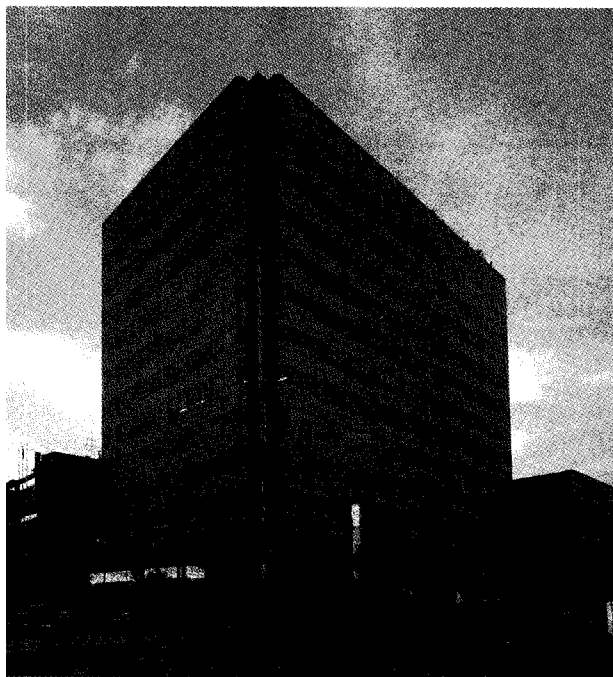


계룡건설, 중부권 건설 주도한다

계룡건설은 1970년 창립하여 인화단결, 조화창조, 책임완수라는 사훈아래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2001년도 전국 시공능력평가액 30위의 1등급 건설업체이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에는 전국 상장건설업체 중 최상위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며 대기업의 틈바구니에서도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간에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원사 탐방, 이번호에서는 내실경영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촉망받고 있는 중부권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 계룡건설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 박병기 기자>

내실있고 튼튼한 기업

올초 계룡건설 창립 3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인구 명예회장은 계룡건설의 지나온 31년을 결산하고 21



대전 월평동에 위치한 계룡건설 사옥

세기 계룡건설의 역할과 신비전을 선포하였다. 외부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기업을 만들어가며, 내부적으로 화합, 단결, 내실을 강조함으로써 힘있는 계룡을 만들어가고 역설한 것이다.

특히 이 명예회장은 2001년을 명실공히 책임을 다하는 기업, 성숙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서 계룡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로 만드는 한편,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지난 한해 건설업계는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이와같이 어려운 사회 여건속에서도 계룡건설은 내실있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공인받는 계기를 만들어 갔다.

전국 상장건설업체중 최상위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경영능력을 평가받아 연일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했으며, 연중 가장 비율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모범적으로 납부하여 2000 납세자의 날에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한편, 2000 건설진흥 촉진대회에서는 건설종합품평 결과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계룡건설의 대외이미지를 한층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99년 주택건설의 날에는 주택건설모범업체로 선정되어 산업포장을 수상함으로써 주택전문건설업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중국 제5건축공정공사와 공사합작계약을 맺는 등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행보를 계속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계룡건설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 올상반기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한 1,992억원, 영업이익은 72% 늘어난 176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이 126억원대를 돌파함으로써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되었다.

이 회사는 상반기 신규수주물량 또한 2,454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1,025억원 보다 139% 늘어났으며 계약잔액규모도 8,35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 영업지역이 대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데 반해, 전국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계룡건설은 사업다각화와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면서 주택사업분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자체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계룡의 야심작, 대전 노은 리슈빌

1970년대부터 꾸준히 주택사업을 시행해온 계룡건설은 이미 시화, 분당, 마포구 중동 등 수도권 지



단지 바로 옆의 그린벨트와 생태공원이 함께하는 환경친화 단지 노은 리슈빌

역으로 진출하여 입주민들에게 호평받은 바 있으며, 최근 입주를 마친 관저 신선마을, 송촌 선비마을, 노은 새미래 아파트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최첨단 아파트를 선보이면서 계룡아파트의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대전 노은 새미래아파트의 경우 IMF라는 국가 초유의 경제침체 속에서도 차별화된 품질과 품격으로 100% 분양완료를 마치고 2001년 상반기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2001년을 맞아 계룡건설은 주택사업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 중전의 아파트와 차별화된 고급주택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침체된 중부권 지역의 분양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고품격 품질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하여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자체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중부권 최고의 아파트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계룡건설이 최근에 분양한 대전 노은 리슈빌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하고 있다. 리슈빌은 리치 빌리지(Rich Village)의 불어

식 표현으로 '풍요로운 마을'을 뜻하며 리슈빌은 계룡건설이 만드는 고급아파트의 고유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초로 대전 노은지역에 리슈빌이라는 브랜드를 적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 지역의 노은과 둔산을 연계하는 최고의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리슈빌은 고품격 아파트를 지향함으로써 테마가 있는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리슈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은 리슈빌은 자연친화형 아파트를 표방한다. 단지 바로 옆의 그린벨트와 생태공원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조망을 선보이며, 교통여건과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둘째,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공원아파트로서 손색이 없다. 전세대 남향배치로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하고, 휴식과 건강, 레저를 고려한 조정설계를 택하고 있다.

셋째, 중부권 최초로 맞춤형 인테리어 시스템을 채택,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색상과 평면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와 최상층 세대를 위한 개인주택형 아파트로 계획되었다. 1층 세대는 거실 전면에 개인정원을 조성하여 전원주택의 느낌을 연출하고, 최상층 세대는 단독주택형 경사 천정, 다락방, 옥상 발코니로 한차원 높은 품격을 제공한다.

넷째, 최첨단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사이버 아파트로 탄생한다.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예비 인증을 이미 획득했으며, 생활과 연계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노은 리슈빌 주택전시관이 개관한 이후로 연일 수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성황리에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을 시행하고 있다. 24평형 156세대, 37평형 177세대, 46평형 236세대, 61평형 66세대, 총 635세대로 구성되며, 2003년 9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독주택형 경사천정과 다락방, 옥상 발코니를 갖춘 노은 리슈빌 61평형 최상층

‘용인구갈 리슈빌’로 수도권 본격 진출

계룡건설에서는 대전지역 리슈빌의 탄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신개념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생존경쟁시대가 될 21세기 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룡 고유의 상품인 리슈빌을 통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계획 아래 리슈빌을 고품격아파트의 대명사로 인식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11월 분양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용인구갈 리슈빌’은 이와같은 노력의 시발점이다. 이미 분당과 시화 등 수도권지역 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계룡건설은 여기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도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초 분양한 노은 리슈빌을 비롯하여 31년간 전국 각지에서 벌인 주택사업의 성과가 차별화된 고품격 아파트 용인 구갈 리슈빌로 결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29평형 72세대, 32평형 463세대 총 535세대로 구성될 ‘용인구갈 리슈빌’은 수도권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분당과 용인의 중간에 위치하여 뛰

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계룡건설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아울러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실용성이 돋보이는 최신 경향의 인테리어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한껏 끌어당긴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종래 동일 평형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 마감재와 옵션품목, 최고급 인테리어는 고품격 아파트의 전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계룡건설은 그동안 자체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신개념주택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변화에 상응하는 신속한 정보 획득 및 데이터베이스화, 과학적 사업분석기법 도입·연구, 인재육성 및 업무 조직화와 더불어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앞으로 확장될 주택사업 분야에 있어서 계룡건설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급화되고 있는 주택현실에 맞춰 인테리어와 기능성을 겸비한 신개념 주택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실현하고 있다.

변화 선도하는 21세기형 기업

지난 96년 기업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써 제2의 도약을 시도한 계룡건설은 99년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2001년 9월 현재 자본금 445억 9천만 원에 도급한도액 4,072억원, 시공능력 평가액 전국 30위의 1등급 건설업체로 성장했으며, 자회사를 포함하여 1,000여명의 계룡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계룡산업(주), 동성건설(주), 계룡레저(주), KR정보시스템, 계룡장학재단 등의 관계회사가 있다. 1982년 출범한 계룡산업(주)은 본공장인 대전공장과 연산·대덕공장 외에 속리산 유스타운과 죽암휴게소를 운영하는데 건재사업을 비롯하여 관광의식사업,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무주휴게소를 준비하고 있다.

1982년 창업한 동성건설은 유연한 조직과 체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1년에 설립된 계룡레저(주)는 대전지역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인 동물원 유희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설립된 계룡장학재단은 국가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각종 연구분야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인재교육에 힘쓰는 한편 문화사업분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인류 유·무형의 유산들을 보존, 관리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같이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계룡건설은 이미 31년의 건설노하우를 축적하여 시공에 관한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건설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에는 얼마전 개장한 대전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1세기 건설업계의 변화를 직시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영활동의 다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건설공사 수주영역확대와 타사업분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국가기간 산업인 SOC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기업은 새로운 환경과 불황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불리한 주변여건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중단없는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이원보 회장의 기업관이 말해주듯이 계룡건설은 본격적인 세계화·개방화시대의 새로운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실성장위주로 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고급 기술인력개발과 기술증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